

2025년 11월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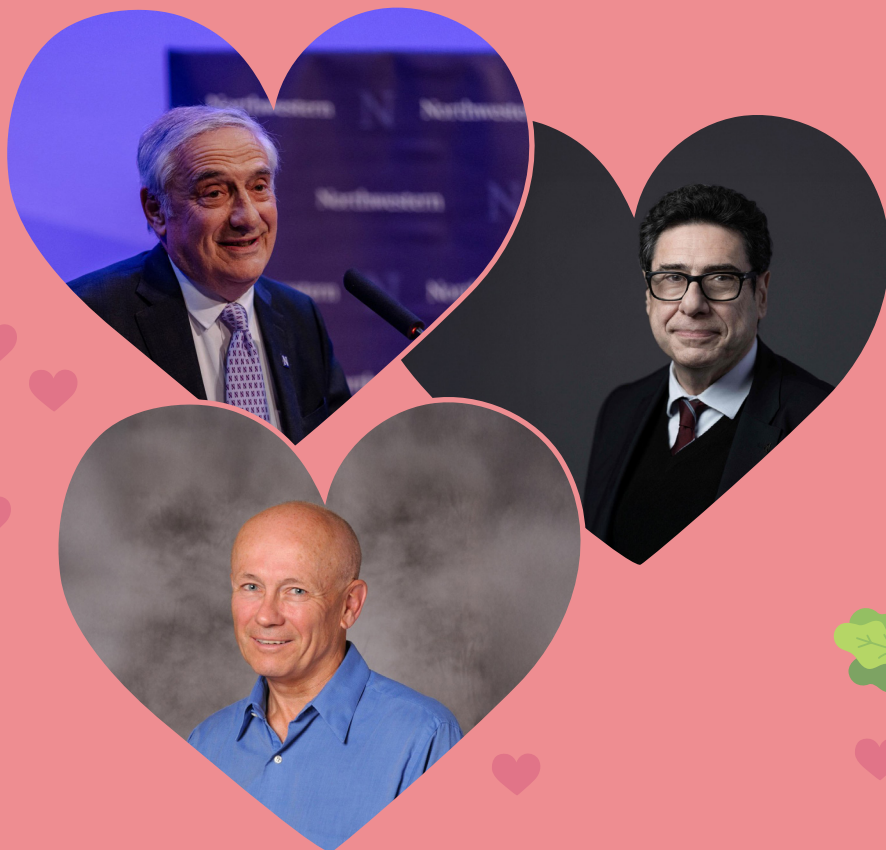
Vol. 424

KDB 소식



TREND

〈트렌드코리아 2026〉로 본
2026년 트렌드 키워드 10



ISSUE

올해 노벨경제학상 3인,
인물과 이론 톺아보기



EVENT

2025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한국산업은행
‘사랑의 김장 나누기’

CONTENTS

03

ISSUE



올해 노벨경제학상 3인,
인물과 이론 훑아보기

05

TREND



〈트렌드코리아 2026〉로 본
2026년 트렌드 키워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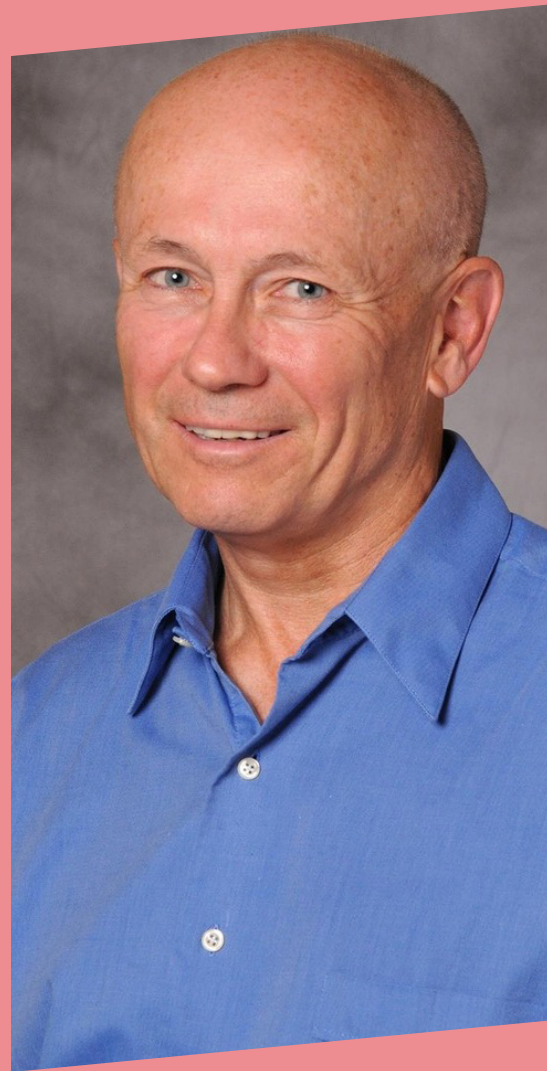
07

EVENT



2025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한국산업은행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올해 노벨경제학상 3인, 인물과 이론 훑아보기



올해(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79·네덜란드)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립 아기웅(69·프랑스)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79·캐나다)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이론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면면과 함께 이들의 핵심 연구와 이론을 알아봅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혁신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연구에

지난 10월 13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신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3인인 조엘 모키어(79), 필립 아기웅(69), 피터 하윗(79)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절반은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을 규명한" 공로로 조엘 모키어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성장 이론"을 제시한 공로로 아기웅과 하윗 교수에게 공동으로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혁신과 기술변화가 어떻게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지를 다각도로 규명한 연구자들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수천 년간 지속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난 2세기에 걸쳐 폭발적인 지속 성장을 이룩하게 된 원인과 그 작동 기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 이론적·역사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조엘 모키어(Joel Mokyr) "기술 진보가 성장 이끈다"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네덜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1946년 태어나 현재 미국·이스라엘·네덜란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그는 어머니의 양육 아래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히브리대학에서 학사, 미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예일대에서 잠시 재직한 뒤 1974년 노스웨스턴대에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몸담고 있습니다.

모키어 교수는 케임브리지대 출판국과 미국의 경제사협회가 함께 펴낸 <경제사 저널>의 공동 에디터, 프린스턴대 출판사의 단행본 시리즈 <프린스턴 서구 경제사> 편집장, 경제사협회(미국) 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술과 지식의 진화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활용,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뉴노멀이 됐는지 원인을 규명했죠. 특히 저서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기원>을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산업혁명 이후 왜 일부 국가들이

지속적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분석해 지식(Knowledge)·기계적 숙련(Mechanical competence)·제도(Institutional setting) 3요소가 성장의 전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기술 진보는 단발적인 전환을 넘어 장기적·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벨 위원회는 그에 대해 “혁신이 자가 발전적으로 이어지려면 단지 ‘작동한다’는 경험적 지식만이 아니라,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아기옹(Philippe Aghion) “창조적 파괴가 성장 원천”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필립 아기옹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와 유럽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터 하윗 교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다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이들은 1992년 발표한 공동 논문에서 ‘아기옹-하윗 성장 모형’이라는 수리 경제 모형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현대 성장 이론에 접목해 기업의 혁신 활동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등장인 기존 것을 대체하면서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혁신은 창조를 일으키며, 이 창조가 옛것을 파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은 바 있는 그는 정부 역할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설계자로 규정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1년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 보고서를 통해 아기옹-하윗 모형을 한국 사례에 적용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기옹 교수는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가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제약하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and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가 한국 산업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진단했죠.

2001년 45세 이하 유럽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위르외 얀손상’을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하윗 교수와 함께 스페인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인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의 ‘지식의 프런티어상’을 수상했습니다.



피터 하윗(Peter Howitt) “성장 엔진은 혁신과 구조변화”

캐나다 태생인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몬트리올 소재 맥길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1972~96년 웨스턴온타리오대에서 재직했고, 이어 1996~2000년 미 오하이오 주립대를 거쳐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대에 정착했습니다.

거시경제와 통화 경제학 영역에 천착해온 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학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술 진보, 기업가정신을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는 이른바 ‘슘페터리언’ 접근법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혁신이 기존 기술과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 대체하는 과정을 모델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 성장, 산업구조 전환, 기술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는 혁신적 기업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기술·기업이 도태되고, 이 ‘파괴’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산업·생산방식이 출현하고

경제 규모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성장 엔진은 단순한 자본축적이 아니라 혁신과 그로 인한 구조변화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국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방성이 창의성과 혁신의 핵심”이라며 “다른 나라의 혁신을 배우고 실행하며,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무역에 대해 계속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2007년 <생산성과 연구·개발의 추세에 대한 회계 분석: 준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슘페터식 비판> 논문을 하 수석과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I 시대, 기술 진보와 혁신을 묻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촉발한 기술적 격변 시점에서 ‘기술 진보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에게 AI 시대의 기회를 잡고, 혼란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지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존 하슬러 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면서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론이 지금 시대에 왜 유효하고 중요한지 적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26〉로 본 2026년 트렌드 키워드 10

내년 소비 경향을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6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코리아〉는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연구팀이 매해 한 해의 트렌드를 앞서 짚어볼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해 단순히 트렌드를 아는 걸 넘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주기로 유명합니다. 연구팀은 2026년을 이끌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가구, 근본이즘을 꼽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트렌드는 ‘AI와 인간의 결합’

내년 트렌드를 미리 내다본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핵심 키워드는 ‘HORSE POWER’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이기도 하고, AI 시대에 강력한 인공지능의 힘(Horse)을 발판 삼아, 인간의 고유한 능력(Power)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김난도 교수는 내년 트렌드인 인간과 AI의 결합을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로 설명했습니다. 켄타우로스가 인간의 뇌와 빠른 말의 다리를 가진 것처럼 사람의 고유한 능력과 AI의 압도적인 능력 완벽하게 합쳐질 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2026년 트렌드 핵심 키워드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

AI와 인간의 협업

휴먼인더루프

HITL, Human-in-the-loop

인공지능(AI)이 업무에 인간이 개입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AI 시대임을 인정하면서도 AI 과신의 위험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들어가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AI가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그 결과의 품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O.

내 감정이 먼저

필코노미

Oh, my feelings! The Feelconomy

필코노미는 감정을 의미하는 ‘필(feel)’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필요와 의미, 경험을 넘어 기분이나 감정을 소비의 주요 동인으로 삼는 경제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필요·의미·경험에 더해 기분이나 감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트렌드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이나 합리성보다 본인에게 맞는 분위기와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감성 공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R.

즉각적 결과 제공

제로클릭

Results on Demand: Zero-click

AI가 먼저 제안해 사용자의 클릭을 최소화하는 현상입니다.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먼저 상품이나 콘텐츠를 제안하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의 타이밍과 첫 노출의 장면이 브랜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는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안하는 AI’로 넘어가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AI 설계로 인한 제로 클릭은 더 효율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지만, 획일화된 소비를 강요할 우려도 있습니다.



S.

자기 주도적 준비

레디코어

Self-directed Preparation: Ready-core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준비는 곧 핵심 경쟁력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트렌드, ‘레디코어(Rear-core)’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준비된(Ready)’ 상태가 삶의 ‘핵심(Core)’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미리 준비 과정을 제공하는 AI의 발전은 이러한 레디코어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E.

AI 전환을 통한 조직 혁신

AX조직
Efficient Organizations through
AI Transformation

AI가 ‘보조자’이자 ‘동반자’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과거 디지털 기술이 조직에 도입됐을 때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t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일어나는 조직 운영을 AX조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AI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이제 AI가 동료가 되는 조직, 바로 ‘AX 조직’의 시대가 왔습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입니다.



P.

짧고 다채로운 경험

픽셀라이프
Pixelated Life

픽셀라이프는 한 권의 책을 완독하기보다 요약본을 읽거나, 한 가지 취미에 깊이 빠지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조금씩 경험하는 등 짧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빠르게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한 후 빠르게 폐기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픽셀 단위의 경험’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큰 이벤트보다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더 자주 찾고 있습니다.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O.

똑똑한 소비자 시대

프라이스 디코딩
Observant Consumers:
Price Decoding

가격 구조를 파헤쳐 합리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현대의 초합리적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는 원가나 유통 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격이 합리적인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검토하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가격의 제품이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W.

이제는 건강도 지능

건강지능 HQ
Widen your Health Intelligence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IQ)’이 필요했고, 관계가 중요한 시대에는 ‘감성지능(EQ)’이 요구됐다면, 건강한 삶이 필수가 된 요즘 시대에는 ‘건강지능(HQ)’이 중요해졌습니다. 건강지능은 AI,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탐색·판단·관리하는 것이 삶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

자율성과 연결성의 삶

1.5가구
Everyone is an Island:
the 1.5 Household

따로 살지만 가족과 잦은 왕래를 하거나 반려 동식물을 키우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5가구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하나(1)로 하되, 반(0.5) 정도는 심리적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취하는 새로운 주거 방식을 말합니다. 공간과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적당한 거리의 연결’을 취하는 트렌드입니다. 완전한 고립 대신 느슨한 연대와 관계 속에서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이죠.



R.

핵심 가치로의 회귀

근본이즘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급변하는 환경이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원칙이나 전통, 핵심 역량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최근 AI,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원조’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변치 않는 ‘근본’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급상승,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아날로그 제품의 재조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한국산업은행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산은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한국산업은행과 서울시새마을회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김장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산업은행 임직원과 가족,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원 등 3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정성껏 담가 포장한 7,200포기의 김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0세대와 40개 복지시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계열기관 9곳 등에 전달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준비 과정마다 담긴 정성과 마음이 추운 겨울을 앞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